

가족이 함께 읽는 '현우경' 이야기 (1)
아름다운 외모로 변한 공주

공양은 커녕 부처님 비방 추녀로 태어나

옛날 한 왕궁에 프라세나지이라는 왕과 말리라는 왕비가 살았다. 어느 날 왕과 왕비 사이에서 파사라라는 공주가 태어났다. 공주의 얼굴은 추악하기 그지없었다. 프라세나지 왕은 공주의 모습을 보고 근심에 잠겼다. 결국 왕은 파사라 공주를 외부의 출입이 통제된 곳에 가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주의 모습을 들리지 않게 하라고 명령했다.

세월이 흘러, 공주는 어느 덧 성인이 됐다. 왕은 공주가 성인이 되자 걱정이 더 커졌다. 왕은 신하를 불러 물락한 가문의 자제로, 현재는 가난하고 고아인 잘생긴 젊은이를 데리고 오라고 명했다. 신하는 왕의 분부대로 좋은 집안 출신인 가난한 젊은이를 찾아내 왕에게 데려갔다.

"나에게는 딸이 한 명 있다. 하지만 공주의 외모는 사람들에게 내보일 수 없을 정

도로 추하게 생겼다. 그대 내 딸과 혼인을 해 준다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들어주겠다."

젊은 남자는 결국 결혼을 승낙했다. 왕은 젊은 남자에게 자물쇠를 주며 절대로 공주를 밖으로 내보이지 말라고 말했다. 남자는 결혼 승낙의 대가로 부와 명예, 권력을 얻게 됐다. 남자는 매일 같이 연회에 나가 귀족들과 어울려 다녔다. 그런데 어느 날 연회에 나오는 귀족들이 공주를 데리고 나오지 않는 남자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왜 저 사람은 연회에 부인인 공주를 데리고 나오지 않는 거지? 아마 공주가 엄정 미인이거나 추녀이기 때문에 데리고 나오지 못하는 걸 거야."

사람들은 연회가 열리는 날, 남자에게 술을 잔뜩 먹인 후 취하게 하고 그가 가진 열쇠를 훔쳐 공주가 있는 성안으로 몰래 침입하기로 했다. 그때, 공주는 남자가 연회에 나간 뒤, 혼자 슬피 울고 있었다.



삽화 · 강병호

"나는 대체 전생에 어떤 죄를 지었길래, 부모와 남편에게 버림받고 이렇게 어두운 밤에 갇혀 지내는 걸까. 만일 부처님이 계시다면 제 앞에 오셔서 제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공주는 어두운 방 안에서 부처님께 정성껏 참회를 했다. 그러자 그 뜻을 아신 부처님이 땅에서 솟아올라 공주의 앞에 나타났다.

공주가 고개를 들어 부처님의 얼굴을 보자 추악했던 얼굴이 선녀처럼 변했다. 공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외모로 변해 있었다. 그러자 부처님은 다시 자취를 감추셨다. 이때 공주의 방안에 사람들이 들어닥쳤다. 사람들은 공주의 아름다운 외모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역시 공주의 외모가 매우 아름다웠기

때문에 연회에 같이 나오지 못했던 거였군."

뒤늦게 자신의 열쇠가 없어진 사실을 안 남자는 험레벌떡 공주의 방으로 뛰어왔다. 그런데 그 방안에는 자신이 알던 추녀의 공주는 온데간데 없고, 선녀처럼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다. 놀란 남자는 왕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공주의 모습을 본 왕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아니, 어떻게 너의 모습이 이렇게 변한 것이냐?"

공주가 대답했다.

"제가 부처님께 엄장소멸 기도를 올리고, 부처님이 제 앞에 나타나시니 제 몸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왕은 크게 놀라하며, 왕비와 공주의 남편을 데리고 부처님을 찾아갔다. 그리고 왕은 부처님께 물었다.

"제 아이가 전생에 어떤 죄를 지었길래 왕가에서 태어났으며, 어떤 죄를 지었길래

추녀로 태어난 것입니까?"

부처님이 말했다.

"옛날 바라나시라는 나라에 부자인 장자가 있었다. 장자의 가족들은 프라데카 부처에게 늘 공양을 올렸는데, 유독 그의 딸만이 프라데카의 모습을 보고 업신여겼다. 그때의 딸이 지금의 공주다. 부처를 비방한 죄업으로 추녀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다."

왕과 왕비, 공주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며 "앞으로는 남을 업신여기고 나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처님은 이 모습에 크게 기뻐했다.

구성=이은정 기자 soe94@hyunbul.com

현우경은... <현우경>은 불교설화로, 착한 일을 하고 불교와 인연을 맺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지는 가족이 함께 읽고 지혜를 키울 수 있는 <현우경>이야기를 연재합니다.

대장경 속 우화 ③
-구두쇠 이리사-

구성-김흥진

옛날에 '이리사'라는 큰 부자가 살았다. 그는 남에게 조금도 보시할 줄 모르는 지독한 구두쇠였다.

어느날 옆집을 보니... 새해에도 건강하자! 네에! 내가 제일 부자대 다들 나보다 잘 먹고 살잖아!...

이리사는 큰맘 먹고 닭 한마리를 사가지고 김숙히 되진 곳으로 갔다. 좋아! 나도 새해부턴 다르게 산다!

남몰래 혼자 다 먹기 위함이다. 이렇게 혼자 먹어야 고기맛에 집중할 수가 있단말야! 하하

하늘의 제석천왕이 이를 보고 버릇을 고쳐주기로 마음먹었다. 못봐 주겠네~

제석천왕은 개로 변신하여 고기를 달라고 꼬리를 쳤다. 아! 저리 꺼져! 개!

그래도 가지않자... 좋아! 너의 두 눈썹을 뜯으면 고기를 주마!

그러자 개는 바로 눈알을 뺏고 이리사는 깜짝 놀랐다. 으엣! 이놈 봐라!!

그러나 이리사는 고기를 주지않고 도망쳤다. 잠깐! 저쪽 가서 먹어야지! 앞이 안보이니 못오겠지? 히히

제석천왕은 이리사로 변신하여 그의 집으로 갔다. 이 이후로 들어 오려는 자는 건어 쳐서 내쫓아라! 네!

그리고 집 안의 재물과 곡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다. 감사 합니다!

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이리사... 어- 잘먹었다! 야! 문열어!

문지기는 지시대로 건어쳐버렸다. 이게 미쳤나 주인을 건어차?

모든게 엉망이 된 이리사. 또?

이때 제석천왕이 비구로 변신하여 이리사 앞에 나타나 일갈하였다. 재물이 많으면 변뇌와 화가 따르는 법이오~ 그대처럼 돈을 목숨처럼 여겼고 작은 보시조차 외면하면 죽어서 아귀가 되는 것이오~ 천한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소?

이리사는 크게 깨달고 보시행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다. 새해 잘구나! 힘 내세요! 고맙습니다!

佛紀 2556年 壬辰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다.

<p>금 룬 사</p> <p>명상수련 주지 정각합장 신도일동</p> <p>■ 경남 양산시 동명 사송리 1036-1 TEL 055)383-7009, 011-556-5830</p>	<p>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금강암</p> <p>주지 정만 사부대중일동</p> <p>■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96 ☎ 051)508-4509 FAX 051)051)508-4870</p>	<p>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말사 불 광 사</p> <p>회주 인산 지준 주지 보광</p> <p>■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125번지 TEL 051)809-1420 (초연중학교 뒤)</p>	<p>황령산 흥제사</p> <p>주지 성문</p> <p>· 매월 초하루 법회 · 매월 초하루-3일 신중기도 · 매주 월요일 다라니 독송</p> <p>사회복지법인 화영도량 노인요양시설 효림원</p> <p>■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3동 485-31번지 TEL 051)802-0130 / FAX 051)804-1037</p>	<p>현수막 제작 · 인쇄물 기획제작 부디기획</p> <p>도서출판 스미등</p> <p>현수막, 도서출판, 사보, 법요집 신문, 달력, 포스터, 카타로그 리플렛, 초대장, 봉투, 상장 상패, 수첩, 수료증, 명함, 스티커</p> <p>광주시 동구 산수동 570-1 TEL 062)225-8825 FAX 062)225-8826</p>
<p>대한불교조계종 자비실천도량 원오사</p> <p>꿈나무가꾸기 명정 장학재단 회주 고원 명정 주지 정관 신도회장 박대건 신도일동</p> <p>■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2동 528번지 TEL 051)542-7949, 545-7949</p>	<p>진 여 원</p> <p>회주 혜총 주지 무성 원장 남보타원 진여봉사단장 정보덕심 사부대중일동</p> <p>■ 부산 광역시 북구 구포2동 930-8 TEL 051)338-1008, 337-1080</p>	<p>대한불교조계종 전주전북포교사단</p> <p>단장 : 주정기 사무국장 : 강석춘 전북포교사 일동</p> <p>■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56-5 전북불교회관내 TEL 063)252-4940</p>	<p>정 안 사</p> <p>주지 정안 신도일동</p> <p>■ 전북 군산시 회현면 고사리 310번지 TEL 063)466-6055</p>	